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143>

JCCT 2023-11-137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CBL)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진혜경*, 윤미진**

Jin Hye Kyung*, Yun Mi Jin**

요약 본 연구는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121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04월 24일~06월 12일까지였다. 연구절차는 시나리오 개발, 사전조사, 사례기반학습 수업 적용 및 사후조사 순이었으며,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은 1주 50분씩 2주 동안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사례기반학습이 문제해결능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제공받기 전에 비해 제공받은 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t=-5.70, p<.0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t=-3.25, p<.002$)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간호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사례기반학습의 활용을 제안한다. 추후 학년별, 간호학 전공 교과목의 학습내용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단계별 임상사례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사례기반학습,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CBL)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nd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1 grade 4 students,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24 to June 12, 2023. The research procedure was scenario development, preliminary investigation, application of case-based learning classes, and follow-up investigation, and the CBL was conducted for 2 weeks, 50 minutes per week.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obtain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the effects of CBL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tested using a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t=-5.70, p<.001$) and academic self-efficacy ($t=-3.25, p<.002$) improved after applying CBL compared to before applying it. We suggest the use of case-based learning as a strategy to improve problem-solving skills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education. In the futu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by developing and applying step-by-step clinical cases at an appropriate level according to the learning content of nursing major subjects by grade.

Key words : Academic Self-efficacy, Case-Based Learning, Nursing Student, Problem Solving Ability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7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7, 2023 / Revised: October 26,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monica41@hanmail.net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간호사는 환자의 문제 발생, 안전, 상황변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 간호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돕고,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결과의 예견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므로써 안전하게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2].

실제 사례를 통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기반 학습(case-based learning, CBL)은 임상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의 현실적 간호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3-5]. 이러한 학습방법은 실제현장과 유사하게 설정된 사례를 토대로 학생들이 관찰하거나 경험하도록 하여 보다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황의 맥락적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과제나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6]. 또한 사례기반학습에서의 사례들은 구조화된 문제해결 과정의 형태로 제시되므로, 교수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임상현장 상황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을 통한 지식의 내면화를 유발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신념이다[8]. 사례기반학습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법보다 학습자의 개인적인 유능성과 학업성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9].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10]. 따라서 사례기반학습의 적용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례기반학습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임상 의사결정능력, 간호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동기, 문제해결능

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3, 4, 7, 11-15], 효과의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사례기반 학습은 이론적 지식을 간호현장 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교과목 맞춤형 사례제시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기반학습은 병태생리학, 임상실습교과목, 성인간호학, 인간성장발달, 인체생리학, 건강사정실습 및 여성건강간호 등의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져 [3, 4, 7, 11-16], 노인간호학에서 사례기반학습을 다룬 연구는 미미하였다. 노인은 노화과정에 따른 질병적,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특성이 차이가 있으며,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노인간호 시 통합적인 관점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17]. 따라서 노인간호학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임상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기반학습과 같은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수업에서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3. 연구가설

가설1.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제공받은 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제공받기 전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가설2.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제공받은 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제공받기 전에 비해 향상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교과목에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유

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K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서 노인간호학 교과목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단일군 전·후 비교를 위한 t-test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30(보통정도)에서 필요한 적정 표본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82명이 표본의 크기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2명 중 사전·사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제공받기 전, 사례기반학습을 수업을 제공받은 후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1)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은 Lee, Park과 Choi [18]가 개발한 성인의 문제해결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 영역으로는 문제명료화 6문항, 해결방안탐색 6문항, 의사결정 6문항, 해결방안수행 6문항, 평가 및 반영 6문항인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7 이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Pintrich와 De Groot [19]가 개발한 도구를 Kwon과 Chung [20]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Chung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5 이었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시나리오 개발, 사전조사, 사례기반학습 수업 적용 및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인간호 사례기반학습에 필요한 사례를 구성하기 위해 가상현실 기반 시나리오 영상, 노인간호학 관련 교과서, 논문 및 수업지도안을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학습 내용에 맞게 변형하여 맥락을 부여하였고 시나리오화 하였다. 사례는 독거노인, 사회경제적인 문제 경험, 복합만성질환, 치매, 자가간호의 어려움 및 가족돌봄 부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헌에서 제시된 사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간호문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간호중재를 포함하여 work sheet를 구성하였다. 사례기반학습 수업의 진행은 학사 일정에 따라 15주의 강의 중 13주, 14주차에 적용하였으며, 주차별 50분 씩 2회로 진행하였다.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수업계획 및 사례기반학습 수업에 대해 공지하고 학생들은 사례기반학습 사전 활동단계로 노인간호학 이론수업 수강 및 노인간호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 시나리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사례기반학습 활동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5~6명이 한 팀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팀은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토론을 통해 각자 의견을 나누었으며, 결론에 대한 답은 제공된 work sheet 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기반학습 사후 활동단계에서는 개인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동료평가를 진행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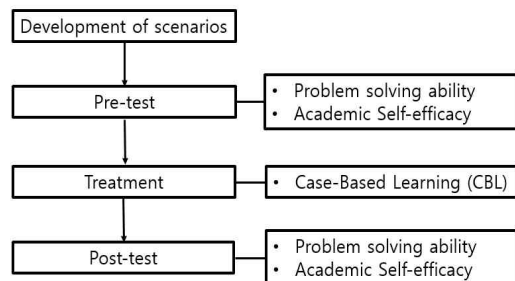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진행도
 Figure 1. Research progress

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3년 04월 24일~06월 12일까지로 사전 조사 및 사후조사는 온라인 team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해 설명하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사례기반학습이 문제해결능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4.05세로 23세 이하가 72명(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92명(76.0%)으로 나타났다. 수업 분반은 1분반 26명(21.5%), 2분반 31명(25.7%), 3분반 32명(26.4%), 4분반 32명(26.4%)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대인관계는 ‘좋음’ 87명(71.9%), ‘보통’ 33명(27.3%), ‘나쁨’ 1명(0.8%) 순이었고, 의사소통은 ‘적극적’ 67명(55.4%), ‘보통’ 44명(36.4%), ‘소극적’ 10명(8.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

본 연구에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는 표 2와 같다.

가설1.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제공받은 후 간 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제공받기 전에 비해 향상될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r)	
≤23	72 (59.5)
>23	49 (40.5)
	24.05±1.55
Gender	
Male	29 (24.0)
Female	92 (76.0)
Class	
1	26 (21.5)
2	31 (25.7)
3	32 (26.4)
4	32 (26.4)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87 (71.9)
ordinary	33 (27.3)
bad	1 (0.8)
Communication	
active	67 (55.4)
ordinary	44 (36.4)
passive	10 (8.2)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수업 전 평균 4.00±0.54점에서 수업 후 평균 4.41±0.69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5.70,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하부영역으로 문제명료화(t=-3.49, p=.001), 해결방안탐색(t=-5.97, p<.001), 의사결정(t=-5.98, p<.001), 해결방안수행(t=-4.96, p<.001), 평가 및 반영(t=-5.96,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가설2.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제공받은 후 간 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제공받기 전에 비해 향상 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 전 평균 35.93±6.59점에서 수업 후 평균 38.68±6.67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3.25, p<.002),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사례기반학습의 효과

Table 2.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in Participants

(N=121)

Variables	Mean±SD		t	p
	Pre-test	Post-test		
Problem solving ability	4.00±0.54	4.41±0.69	-5.70	<.001
Clarifying problem	4.18±0.54	4.44±0.67	-3.49	.001
Seeking a solution	3.93±0.63	4.40±0.71	-5.97	<.001
Decision making	3.95±0.62	4.39±0.71	-5.98	<.001
Applying the solution	4.01±0.62	4.41±0.71	-4.96	<.001
Evaluation & reflection	3.91±0.63	4.40±0.70	-5.96	<.001
Academic self-efficacy	35.93±6.59	38.68±6.67	-3.25	.002

IV. 논의

본 연구는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수업 전 평균 4.00 ± 0.54 점에서 수업 후 평균 4.41 ± 0.69 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사례기반학습이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 7, 12].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하기 전 사전활동으로 노인간호학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하고, 노인간호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 시나리오 영상을 시청하여 노인간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병태생리학 교과목에서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사례기반학습의 효과를 살펴본 Lee와 Park [3]의 연구는 플립드 러닝 단계인 사전학습을 통해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미리 해결하고, 사례를 반복적으로 접하며, 단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문제해결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사례기반학습을 진행하기 전 사전학습을 단계를 마련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하부영역으로 문제명료화, 해결방안탐색, 의사결정, 해결방안수행, 평가 및 반영 모두 수업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인간성장 발달 수업에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Kim과 Choi [12]의 연구와 유사하다. Kim과 Choi [12]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하부영역에서 모든 영역이 학습 후 향상되었으며, 특히 문제의 명료화-문제인식, 대안개발-확산적 사고, 계획/실행-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수행평가-평가 영역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례기반학습은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생각된다.

반면, Lee와 Park [11]의 연구에서는 사례기반학습이 문제해결능력에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였는데,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용기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ho [15]의 연구에서 사례기반학습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문제해결과정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는데, 각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이 상이할 수 있으며, 교육적 환경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사정 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건강문제를 명료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어려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 바 있다. 다만 Cho [15]의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 해결책 수행, 평가 및 반영 요인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례기반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맥락을 해석하고,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조원들과 토의 및 의견공유를 통해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15, 21, 22].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 전 평균 35.93 ± 6.59 점에서 수업 후 평균 38.68 ± 6.67 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사례기반학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 12, 15, 16]. 학업적 효능감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임상사례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임상 상황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Lee와 Park [3]의 연구는 플립드 러닝의 사전학습 단계를 강조하면서, 사전학습이 학습자들이 문제해결 방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기반학습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An [16]의 연구에서는 여성건강간호 수업에서 애니메이션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사례기반학습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학습방법은 학습자 흥미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사례 접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임상현장에 대한 자신감 증진 및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더욱 어려운 과제를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10]. 따라서 시나리오, 영상매체,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접목한 사례기반학습은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블렌디드러닝 융합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Lee와 Noh [14]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학년 학생의 특성상 전공교과목이 증가하고, 전공심화 단계에 있으며, 학

사실정 상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수업이 2배수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사례기반학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운영방법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적 환경에 따른 유연성과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대조군이 없는 실험설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군-대조군을 실험설계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학습자가 가지는 개인적 특성이 사례기반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확장연구를 제안한다. 학년별, 간호학 전공 교과목의 학습내용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단계별 임상사례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간호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사례기반학습의 활용을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사례기반학습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사례기반학습의 활용을 제안한다. 추후 임상현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단계별 임상사례와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M. Jenkins, "Improving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24, pp. 242-243, 1985.
- [2] K. R. Shin, J. W. Hwang, and S. J. Shin, "Concept Analysis on the Clinical Critical Thinking Ability in Nursing,"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0, No. 5, pp. 707-718, 2008.
- [3] M. H. Lee, and M. S. Park, "The Effect of Case-Based Learning Based on Flipped Learning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 2, pp. 107-116, 2021.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2.107>
- [4] M. E. Jeong, and H. S. Park,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Nursing Performan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2, No. 3, pp. 308-317, 2015.
<https://doi.org/10.7739/jkafn.2015.22.3.308>
- [5] P. S. Richards, and M. R. Inghar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Case-Based Teaching: Does It Create Patient-Centered and Culturally Sensitive Provider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Vol. 70, No. 3, pp. 284-291, 2006.
- [6] N. Gilboy, and D. Kane, "Unfolding Case Based Scenarios: A Method of Teaching and Testing," *Journal of Emergency Nursing*, Vol. 30, pp. 83-85, 2004.
- [7] J. A. Kim,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Intrinsic Motivation, and Cours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7, No. 1, pp. 21-37, 2015.
- [8]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 company*. pp. 606, 1997.
- [9] Y. K. Chung, S. Y. Lee, J. Y. Song, and Y. K. Woo, "Differential Relations of Students' Perceived Instructions to Their Motivation, Classroom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9, No. 1, pp. 211-235, 2017.
- [10] E. S. Lee, and E. J. Bo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4, No. 2, pp. 107-114, 2017.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07>
- [11] M. H. Lee, and M. S. Park, "The Effect of Case-based Learning (CBL)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Pathophysiology Cours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 Vol. 18, No. 3, pp. 176–184, 2016.
- [12]J. S. Kim, and H. J. Choi,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9, No. 1, pp. 141–150, 2021. <https://doi.org/10.15268/ksim.2021.9.1.141>
- [13]N. H. Kim, J. Y. Park, and S. E. Jun,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CBL) on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a Human Physiology Cours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7, No. 1, pp. 78–87, 2015.
- [14]O. S. Lee, and Y. G. Noh, “The Effect of the Blended learning and Case-Based Learning on Learning strateg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1, pp. 373–379, 2021. <https://doi.org/10.14400/JDC.2021.19.11.373>
- [15]Y. M. Cho, “The Effect of Case-Based Health Assessment Practical Education on Class Participation, Problem Solving Proc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20, No. 2, pp. 499–509, 2022. <https://doi.org/10.14400/JDC.2022.20.2.499>
- [16]N. W. An, “Effect of Case-Based Learning using Animation Media in Women’s Health Nurs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5, pp. 347–361, 2023.
- [17]S. H. Baik, D. S. Shin, S. O. Chang, G. R. Hong, S. H. Kwon, M. S. Kim, and S. J. Kim,... “Baccalaureate Competencies and Curriculum in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0, No. 2, pp. 76–85, 2018.
- [18]W. S. Lee, S. H. Park, and E. Y. Choi, “Development of Korean Problem Solving Process Inventory fo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4, pp. 548–557, 2008.
- [19]P. R. Pintrich, and E. V. De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pp. 33–40, 1990.
- [20]K. K. Kwon, and H. M. Chung,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Task Value, Learning Engage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the Flipped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4, No. 3, pp. 407–439, 2018. <https://doi.org/10.17232/KSET.34.3.407>
- [21]S. K. Chaung, “Change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 37–42, 2020. <https://doi.org/10.17703/JCCT.2020.6.1.37>
- [22]S. W. Lee, and B. Y. Kim, “The Effects of a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Program Using Situation-Oriented Case-Bas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0, No. 3, pp. 210–219, 2022.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3.210>